

THE
B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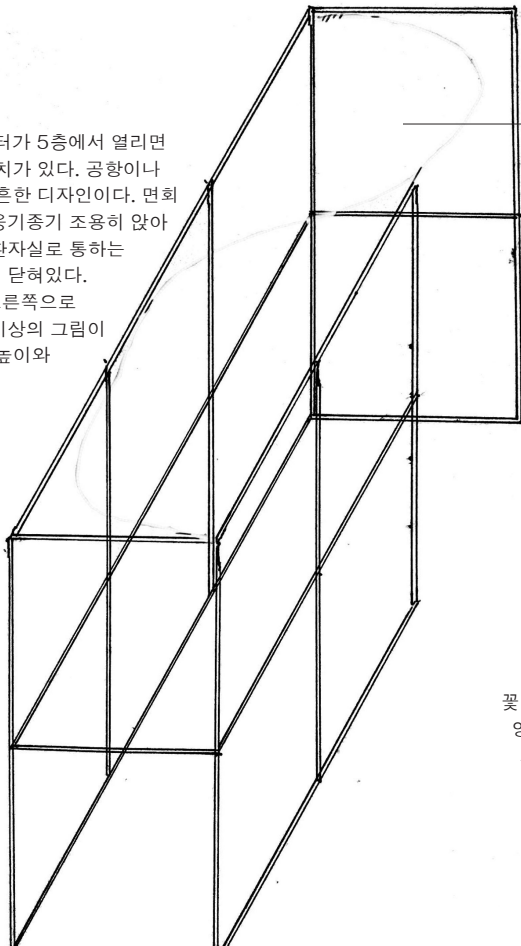
Vol. 1

The OBLP Vol.1

The OBLP는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Oh! to Be a Painter!"
의 제목에 'Lotus'를 더한 Oh! to Be a Lotus Painter! 을 뜻한다.
비서구권 여성 회화 작가로서의 삶의 과정을 엮는다.

24년
3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열리면
삼 인용 회색 가죽 벤치가 있다. 공항이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디자인이다. 면회
온 사람들이 벤치에 웅기종기 조용히 앉아
있다. 왼쪽으로는 중환자실로 통하는
반투명 자동문이 굳게 닫혀있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작가 미상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적절한 높이와
간격으로 잘 걸렸다.



그림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림은 눈을 마주쳐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보이는 그림일 수도 있다.

한정된 몇 가지 색을 사용해 간결한
붓질로 그린 표현주의 풍경화인데,
4호 정도 크기의 둥근 붓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초록색,
진한 초록색, 황토색, 붉은 황갈색의
붓질이 언덕을 만들었다. 아래로는
주황색 꽃들이 위에서 아래로 향한
붓질로 부드럽지만 색이 섞이지
않고 또렷하게 보이도록 서 있다.
그 양쪽으로는 하늘색, 연두색 등의
꽃밭이 있는데, 가운데 주황색
꽃밭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중심을 잡고 있기에
양쪽의 꽃밭은 그것을 거두고 있을 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하늘에는 옅은
노란색과 회색빛의 둥근 구름 몇 개가 떠 있다.

7시 정각이 되자 문 앞에 있던 안내원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엄마를 병실로 안내했고,그리고 나서야 혼자
 빈 자리에 앉았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조금
 멀어졌지만,그림이 아직
 보인다.신중하게 여러 겹의 색을
 쌓아 올려 완성한 그림이지만
 숙련된 손으로 망설임이
 없다.조금 틀렸지만
 괜찮아.언제나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지만 한
 가지의 선택은 항상
 다른 한 가지의
 대가를 치른다.

회화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상상은 낭만적이다.

회화를 볼 때 사물이 아닌 누군가를 마주친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기억해 보자. 이것은 19세기까지의 서양 미술사는
 회화와 조각이 사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이자벨 그로(Isabelle Graw)가
 ‘생기적 환상(vitalistic fantasies)’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듯이, 포스트 미디어 이후의
 회화에 깃든 작가의 삶과 노동력이 SNS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각자의 일상을
 공개하며 우리 삶의 방식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 오늘날 손에 잡히지 않는 포스트
 포드주의, 네트워크 경제 같은 시스템 안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현대
 회화가 아직도 최초의 미술사가 레온
 바리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가 말한 대로 “신성한 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고 “부제하는 사람(작가)을
 현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서구권 아시안,
여성, 이방인 회화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는
이와 같은 회화의 주체적 삶과
‘부재하는 작가의 유령 같은 존재’
사이 새로운 관계에 큰 매력을 느낀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이동하며 과정-생성 중에 있는 주체를 회화로 옮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글을 번역하거나 차용하는 방법과도 비슷하다.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는 주체와 ‘회귀한’ 대상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데카르트의
‘경이로움’을 (만저지고 끝림을 향해
움직여 도달한) 타자와의 만남으로서
경이로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요한나 버튼(Johanna Burton)은 에세이
‘차용의 처음과 끝 사이에 경이로움이
있다(Before and After Appropriation,
There is Wonder...)’에서 이리가레의
경이로움은 시각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멈출 것이다.” 시각이
가장 일반적인 차용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은 물질적 형태 내에서 그 의미의 전부를 지닌 사물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육체화된) 경이로움의
확장으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동시에
다가가는" 것을 허용한다.

질문을 던지고 "다른
"자신에게 가까이
(뤼스 이리가레)

출처는 계속 이동한다.

여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 조각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번역은 원래 문화의 삶이
지속됨을 나타낸다.(...)번역은 언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며(사라진 두 언어 간의 방정식이
아니라), "원래 언어의 성숙하는 과정과 분만하는 고통을
감시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는다.(트린 T. 민하(Trinh T.
Minh-ha))

그로, 이리가레, 민하 모두 예술이 물질적
삶으로 흡수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들에 대해 생각했고, 그들의 사고가
매료되었다.

형태 밖으로 나가
나는 오랫동안
겹치는 지점에

21년
12월.

작품과 삶의 구분을
무너뜨린 페미니즘의 오랜 전통을 잇는
‘자기 이론(autotheory)’은 글쓰기,
시각예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발전해 왔다.
최근 출간된 로“렌 푸르니에
(Lauren Fournier)의 자기이론:
미술, 글쓰기, 비평에서 페미니스트적
실천(Autotheory as Feminist Practice
in Art, Writing and Criticism)’(2021)을
읽으며, 이론이 예술적 실천에 동원되는 방식,
정체성이 이론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방식, 또한 고유한 담론이 자기 이론을
저항 또는 반대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팬데믹 이후 개인과
집단의 우선순위가 의문시되는 시점에
자기 이론적 실천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에 공감했다.

장피에르 고랭(Jean-Pierre
Gorin)의 영화는 영화의 주제를
찾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모이라 데이비(Moyra Davey))

일기나 편지 형식은
스토리텔링이나 구조가 없는,
의식의 흐름 그대로를 보여주기에 더
현대적이다 (모이라 데이비)

사물 그 자체보다 사물들 간의
관계가 항상 새로운 의미를 낳는다.
(알도 로시(Aldo Rossi))

24 년
3 월 .

챗GPT(ChatGPT)에 다이어리를
쓴 여성 작가를 검색했다. 병상에서 창밖 풍경에
관해 쓴 작가, 소설을 쓴 회화 작가를 검색했다.
챗GPT와 내 레퍼런스의 범위에 관하여.



23 년
11 월 .

잠, 꿈. 아픈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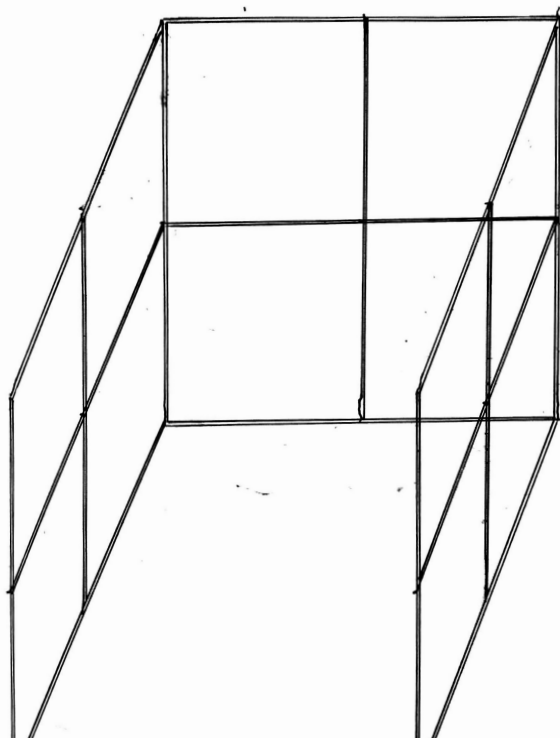
23년 12월.

온갖 약에 취해 흐려진 정신으로는
자유롭게 어디로든 떠나는 상상마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버지의 몸이 내 몸인
것처럼 곳곳이 누워,
하늘을 향해 누운
몸으로 고통을
상상하고
미안해하며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 나는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우리는 막대기에 매달려 넷물에
떠내려간다. 낙엽이 뒹구는 풀밭, 아마도
수년간 처음으로 부담 없이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독특한 광경의 첫인상이 묘하게
압도적이다. 보통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수가
없다. 공공장소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보행자들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눈에 보이는 풍경은 굴뚝들과 교회들로
망가지고, 사람에게 배경 구실을 하며
곳거나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창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가을 광장에 선 초라한 가을
플라타너스의 애수를 완성한다. 이제
누워서 올려다보면 하늘은 이것과 전혀
달라서 좀 충격적이다. 이제껏 이걸
모르고 지냈다니!

끝없이 형상들이 만들어져
쏟아지고, 구름들이
부딪혀 거대하게 꼬리를
문 선박들과 짐마차들이
북녘에서 남녘으로 간다.

끝없이 빛과 그림자의
장막들이 위아래로
펼쳐지고, 금빛 기둥들과
푸른 그림자들이 태양을
가렸다가 드러내고 바위
성벽을 지었다 부수며
부단히 실현한다.



이 사실은 논평과 실은 비난을 요구하는 듯하다. 누군가가
「더 타임스」에 기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웅장한 영화가 빈집에서 영원히 상영되게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지켜보면 다른
감정이 이런 시민의
열정을 잠식한다. 그것은
지독히 아름답지만 지독히
무정하다. 무한한 자원이
인간의 쾌락이나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쓰인다.

우리가 엮으려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하늘은 파랑과 금빛으로
실험을 할 것이다. 아마 그때
아주 작고 가깝고 익숙한 것을
내려다보면, 동정을 발견할
것이다.

장미를 살펴보자. 우리는 화병에서 피는



장미를 자주 보고, 절정기의

아름다움과 연결 짓기

일쑤다. 그래서 장미가 오후 내내 땅에서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지

있었다. 장미는 완벽한 기품과 태연자약함을 지킨다.

풍성한 꽃잎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이제 아마도 하나가 일부러

넘어진다.

모든 꽃송이, 관능적인 자줏빛, 밀랍 같은 속살에
앵두즙 한 스푼을 뿌린 크림색. 글라디올러스, 달리아.

성스러운 교회의 백합화, 살구빛과 호박색이 도는

깔끔한 색지 같은 꽃들이 산들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만히 고개를 숙인다. 무거운 해바라기만

빼고 모두. 해바라기는 한낮에는 태양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아마도 한밤에는 달을

되짜 놓을 것이다. 거기 꽃들이 서 있고, 인간이 곁에

두는 것은 가장 양전하고 가장 충만한 꽃들이다. 이



꽃들은 인간의 열정을

상징하고, 축제를

수놓고, 망자의 베개에

(마치 슬픔을 아는 듯이) 놓인다. 멋진

말이지만 시인들은 자연에서 종교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식물에서 미덕을 배우기 위해
시골에서 산다.



식물이 위안이 되는 것은
그 태연자약함 때문이다.

인적 없는 마음의 설원을

구름이 찾아오고, 떨어지는

꽃잎이 입 맞춘다.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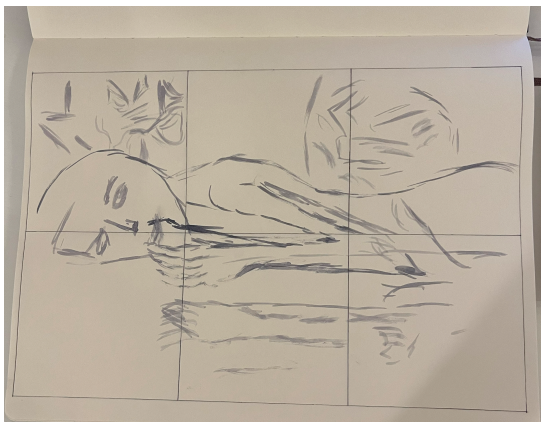
다른 세상에서 사상이 아닌

망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밀턴과 포프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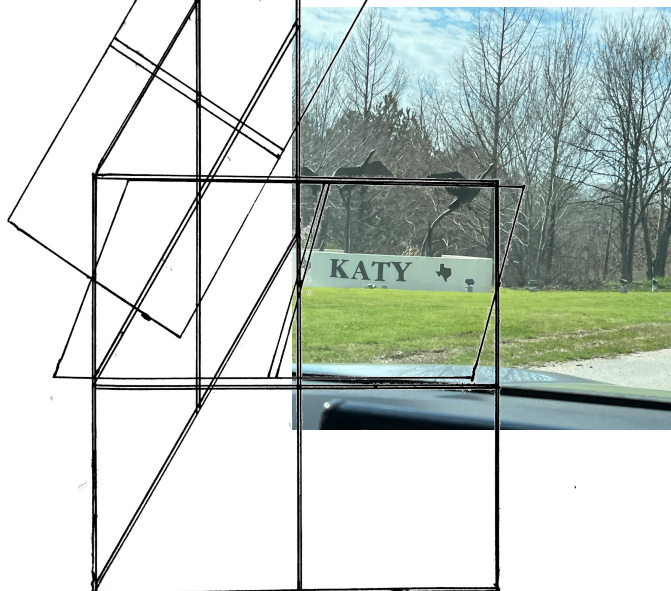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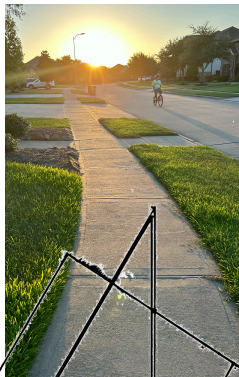
(버지니아 울프, "아픈 것에
관하여/병실 노트" 한국어
번역서 중 발췌)



24 년
6 월 .

센트럴 파크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처음이다. 나무와
나무가 위아래에서
만나는 광경. 서늘한

바람. 외투가 생각날 만큼 차가운
공기와 떨 냄새. 지는 해가 나뭇가지
사이로 내 눈을 비추자 약간 고개를
돌려 해를 나뭇가지 뒤로 숨긴다.
해가 비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요동치는 날파리들이
보인다. 나뭇가지에 걸린 은박
비닐봉지.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아까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중 한 마리가
내 발밑까지 와서 나를 뺏히
쳐다보자 더 이상 다가오면 날려
버리려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본다.
내 주변으로 새들이 모이는 것
같아 무서워진다. 점점 더 짙게
번지는 떨 냄새. 6월 마지막
날이지만 추워서 야마존에서
새로 구입한 싸구려 캠핑
돛자리를 어색하게 걸어 접고
서둘러 자리를 뜬다.



22년
9월.

남쪽 빛이 모든 것을 더 질고
명료하게 보이게 만들고, 널따란 I-10을
달리며 보는 휴스턴 하늘은 정말 장관이다.
엄마는 휴스턴 하늘이 그리울 거라고 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무렵,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향해
쏟아진 증오는 곧 아시안 혐오로
번졌다. 그에 맞서는 “**Stop AAPI
Hate**(2020년 코비드 팬데믹 이후
발생한 아시아계 차별 혐오 범죄에
대항하는 슬로건)”연대 활동이
한창일 때 아버지가 발병했다. 글로벌
팬데믹과 아시안 혐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과정의 슬픔과 애도,
이 모든 일이 처음 겪는 일이었고,
그 기간 동안 화해는 가장 중요하지
않고 등한시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상에 존재하며 가장 큰 위로와
공감을 줬다.



23년 5월.

동생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괜찮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고
의아해했다. TV에서 텔러스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혐오
범죄로 추측되는 총기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가
흘러나온다. 희생자 중에
젊은 한인 가족도 있었는데,
아빠, 엄마, 두 아이 중 엄마가
품에 안고 있던 막내 한 명만
생존했다. 선물로 받은 아이의 옷을 바꾸려고
들렀다가 귀가하는 길이었다. 몇 시간 후
사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가 유년 시절
같은 한인교회에 다니던 친동생과 동명의
지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용서를 구했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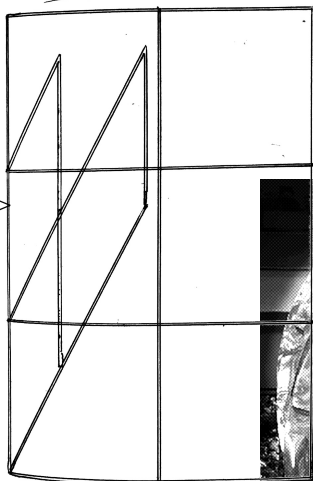
24년
5월.

<패스트 라이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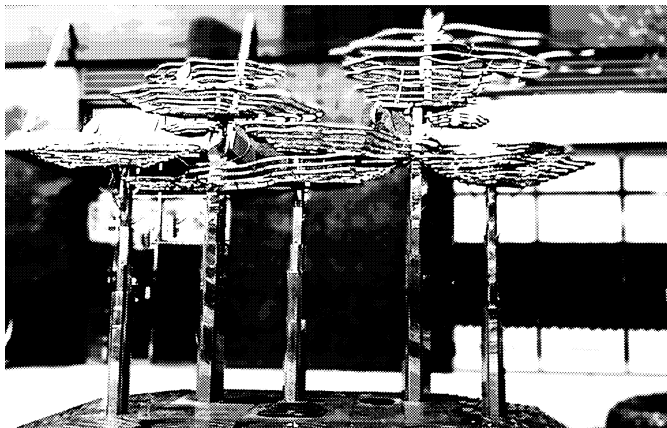
서울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다. 마치 시간 여행 같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등장인물의 정처 없고 대상 없는 그리움에 공감했다. 여기와 거기,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평범한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고 천천히 흘러간다. 유년 시절을 모국에서 보낸 기억이 있는 주인공 노라가 개인적으로 반갑다. 영화를 만든 셀린 송(Celine Song) 또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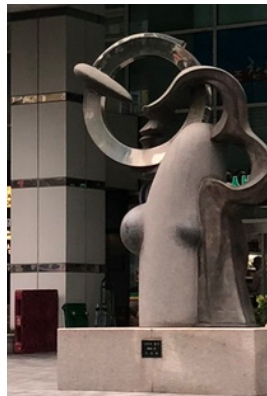
어린 시절 모국어를 쓰다가 이민 간 사람만이 아는 특유의 감정적 부재 같은 것이 있다. 타국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자아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완성된 후, 성장을 멈춰버린 첫 번째 자아를 고향에서 마주할 때의 어색함과 그리움 같은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 있다'는 영화의 시제를 두고 그들은 과거에서 어떤 미래를 찾았을까.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린 혜성과 노라가
서울의 한 공공조각 앞에서 노는 장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뉴욕에 있는 공공조각 앞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이다.
나는 서울의 공공조각들을 비밀스럽게 좋아하고 있었다.
길거리를 거닐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히 나 정도 되는
크기로 서있는 조각들을 마주칠 때면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 나는 특히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재현하는 조각이 아닌, '사랑,' '희망'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로 순수 형식을 강조한 조각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조각은 특정 미술 사조를 참조한 흔적이 없는
독립적인 것이었다.



미술관에 있는 작품과
다르게 공공미술은
사람들과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지표, 모임 장소,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공공 조각의
역할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안에 서 있는 공공
조각 또한 변하게 된다. 묘한 소속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
조각들 앞에서 혜성과 노라는 마치
서로의 “성숙하는 과정과 분만하는”
고통을 감시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처럼 서 있다.



아 시 아 계 미 국 인 , 바 이 러 스 로 인 한 폭 행 증 가 보 고 , MSNBC, 2021년 3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 공격을 계속하면서 증오 범죄 보고서 수집, San Francisco Chronicle, 2021년 3월 19일

비영리 단체, 아시아계 미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종 차별을 보고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NBC 뉴스, 2021년 3월 19일

침 벨 고 , 소 리 치 고 , 공 격 : 중 국 계 미 국 인 , 안 전 에 대 한 두 러 움 뉴욕 타임스, 2021년 3월 19일

사실: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발언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주 지도자들이 개입해야 할 때다, LA 타임스, 2021년 3월 19일

미 국 인 의 30% 이 상 이 아 시 아 인 에 대 한 C O V I D - 19 편 견 을 목 격 했 다 고 여 론 조 사 에 서 밝 혔 음, NBC 뉴스, 2021년 3월 19일

'칭송! 중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 NBC News 2021년 3월 19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 이후 베이 지역의 긴장된 음력설, New York Times, 2021년 3월 19일

수 백 명 의 자 원 봉 사 자 가 노 인 아 시 아 계 미 국 인 을 호 위 하 여 안 전 을 유 지 , The Hill, 2021년 3월 19일

왜 Stop AAPI Hate의 신시아 최는 반아시아계 폭력이 모든 사람에게 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Elle 2021년 6월 15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COVID-19보다 반아시아계 증오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KQED, 2021년 6월 15일

'집단지 트라우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 차별적 공격 증가 속에서 정신 건강 위기에 직면, USA Today, 2021년 6월 22일

반 아시아계 증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HuffPost, 2021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 법안은 여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반 아시아계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NBC News, 2022년 3월 17일

애틀랜타 총격 사건 1년 후, 왜 우리는 여전히 반 AAPI 증오에 시달리고 있는가, Time, 2022년 3월 17일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우는 방법, The Guardian, 2022년 5월 20일

제안된 법안은 공공육 캠페인을 통해 반 아시아계 폭력과 괴롭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Spectrum News, 2022년 5월 20일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 커뮤니티는 모두 2주 동안 대량 총격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 NBC News, 2022년 6월 10일

'황폐해진' BTS, 미국에서 반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비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방문, Time, 2022년 6월 10일

오 크 크 릭 살 인 사 건 을 기 억 하 며 , 백 인 우 월 주 의 폭 력 의 전 조 , NPR, 2022년 8월 12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행위가 계속 급증, 연구 결과, The Guardian, 2022년 8월 12일

캘 리 포 니 아 에 서 두 개 의 반 아 시 아 계 증 오 범 안 이 만 장 일 치 로 통 과 ,AsAm News, 2022년 9월 9일

(...)

(s t o p a s i a n h a t e . o r g 아 카 이 브 의 뉴 스 헤 드 라 인)

우리는 진정한 소수자로 간주될
만한 존재감조차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다.
다양성 요건을 채울 만큼 인종성이 두드러 지지
않는다. 너무나 탈인종적이어서 실리콘 같은
존재다. (케시 박 홍(Cathy Park Hong))
영화감독 트린 T. 민하는 내 체험

바깥에 있는 문화에 “관해 말하기”(speaking
about)보다 그 “근처에서 말하기”(speaking
nearby)를 제안한다 (...) 내가 모듈
형식의 에세이를 쓰게 된 것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상태가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내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봤자
그 절반을 다룰 수는 없고 그저
“근처에서 말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시 박 홍)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의 3세계 디아스포라 작가를 포함한
유색인종 작가는 자서전 작품만 쓸 수 있다고 인식된다.
그들은 모국과 모국어에서 멀리 떨어진 이중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의지해 글을 쓰고 대부분 소문에
의존한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오래전에 지나간 현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과 출신 국가의 잔해를 되살리는
데 능숙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서전은
이러한 작가들이 피난처로 삼는 거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거처를 보존하려면
그들은 그것을 열어서 전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인적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런 “자서전”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이야기하기로
선택한 것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 그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정치적으로
인식된(“유색인종” 또는 “3세계”) 대표적
공간에서 글을 쓰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억한다기보다는 이야기하기 위해
기억한다. 그들이 거주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설 때, 어떤 의미에서 “집”으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진다. 그들은 통로가 되고,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동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더 멀리 떠나기도
한다. (트린 T. 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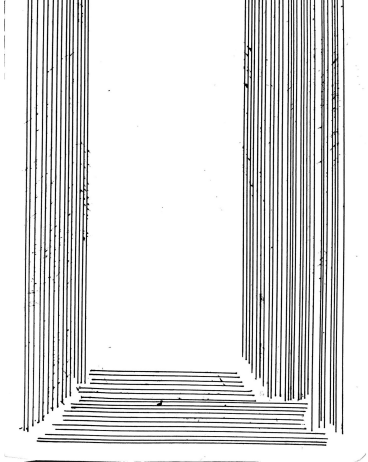
뉴욕은 아직 디지털 도어락이 없는
문이 대부분이다. 문마다 재밌는 특징이 있다. 내가
살던 집은 잠금장치가 뽁뽁해서 열쇠를 구멍에
넣고 장치를 왼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천천히
떠넘겨야 한다. 친구가 방문했을 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익숙하게 문을
열 수 있었다. 보통
밖으로 나가면 문이
저절로 잠기는데,
이번 집은 문이 통
잠기질 않았다.

24 년
6 월 .

전에 살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문을 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아야 잠긴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서도
세게 닫아야 잠기고, 아니면 스르르 혼자 열리곤 했다.

휴스턴 집의 문은 미국 남부의 강한
햇빛 때문에 나무의 색이 바래고 검은색
손잡이와 자물쇠도 희끗희끗하게
변색됐다. 20년 넘게 드나든 부모님의
집을 내가 대신 내놓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깨끗하게 수리해서 다시
새 문이 됐다. 집을 드나들 땐 주로
차고의 문을 이용했기에 대문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갈 때만
사용했다. 자물쇠는 문제없이, 아주

부드럽게 기분 좋은 스냅과 함께
풀렸는데, 보통의 자물쇠보다
열리는 각도가 조금 짧았다.



문은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분리하고, 삼투를
방지하고, 칸막이를 형성한다.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

문은 반쯤 열린 우주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뒤샹의 문,
11 rue Larrey〉)

거기에 신비로움으로 열리는 작은 문을 두었다.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기획 편집

도움

디자인

제니조

황재민, 김여명

스튜디오 혁

